

開 會 辭

沈鍾燮

中央教育審議委員會 委員長

尊敬하는 內外貴賓여러분 !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21세기에 대비하여 初. 中等科學教育의 振興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激變하는 世界속에서 보다 人間다운 그리고 풍요로운 내일의 삶을 希求하면서 우리의 可能的 知能과 力量을 다하여 새로운 文化創出에 全力을 하여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文化創出의 原動力이 되는 것이 創造와 能率 그리고 合理의 精神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과 기술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世界 많은 나라들은 앞을 다투어 科學과 技術의 開發에 總力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이 世界的인 現狀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경쟁상태는 앞으로 더욱 加速化 되어갈 展望인바 21세기야 말로 그 노력에 대한 성과의 優劣을 가름하는 文化의 發展實相이 분명히 들어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 조짐으로서 오늘날 선진 각국의 技術保護 장벽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가 하면 市場 開放 要請도 심하여져 가고 있음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現實狀況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對備하여 가야할 것인지를 眞摯하게 檢討하여 보아야 할때가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多幸히 政府에서는 국가의 각 분야 發展에 있어서 科學과 技術이 그 發展의 原動力이 되고 있음을 깊이 認識하고 80년대 初에 GNP 대비 研究開發 投資가 0.5%

에 不遇하였던 것을 2000年代에는 5%까지 增加할 계획을 發表한 바 있으며, 또한 科學技術 先進 7위권에 진입한다는 국가적 目標아래 最近 첨단 과학 기술 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年初 대통령 年頭 記者會見에서도 90년대의 5 大 當면 과제의 하나로 科學 技術 振興 施策을 천명한 바 있음은 科學人들 뿐 아니라 은국민이 慶賀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科學과 技術의 發展은 단계적으로 整然한 準備과정을 거쳐야 正常的인 發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국가적 目標을 成功的으로 達成하기 위해서는 먼저 現實狀況을 여러가지 面에서 綿密히 調整 검토하여 改善이 必要한 要因들을 究明하여 이 要因들을 肯定的으로 收用하고 果敢하게 개선하여 가는 努力이 뒤따라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와같은 要因中의 하나가 바로 現行 初 中等 科學教育이 아닌가 합니다. 세 살버릇 여든까지라는 格言과 같이 가장 感受性이 강하고 記憶力이 뛰어난 初 中等 學校 과정에서 科學教育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가야만 上級 過程에서의 科學과 技術에 關한 문제의 理解와 創意性 개발에 크게 寄與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科學과 技術에 대한 意識度를 높혀 生活의 科學化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科學과 技術發展에 관한 國內의 情況에 비추어 오늘의 大討論會의 意義를 찾아보고자 하며,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기탄없는 많은 高見을 주시어 앞으로 이 나라의 初 中等 科學教育 振興에 큰 發展이 있기를 바랍니다.